

2024 년 8 월 25 일 “(생명의 공동체 3) 자기를 비움 그리고 채움”(고후 6:1-10)

오늘은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자기를 비움 그리고 채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찰스 콜슨은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업적과 성공이 아닌 전과자라는 실패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죠(빌 3:8).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자랑에 대한 집착을 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성공과 재능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것을 '자기를 비운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여 학위, 명성, 재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참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재구성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2] 비우기와 채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v.4b~8a 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면에 구비한 영적 자질로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v.8b 이하에서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진실하고, 유명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의 보는 눈이 바뀌어 그 이면의 실재(reality)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고전 2:9 읽음).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지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고 듣고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실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감동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참 교제와 격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살아오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 봅시다.
2. 나의 자랑과 성공에 관하여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관해 자기를 비우고 채우는 일이 일어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